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5. 2. 20.(목) 07:00 ~ 22:00
- 상담건수: 64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1명)

-프로그램명 :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방송일시 : 2025. 2. 19.(수) 2R (18:00-20:00)

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 진행자가 차분하게 진행하는 점이 좋고, 선곡도 좋다.

○ 출연자 제언(4명)

-프로그램명 : 「아침마당」

-방송일시 : 2025. 2. 20.(목) 1TV (08:25-09:30)

물리치료사가 출연해서 호흡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본인이 호흡기가 좋지 않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패널 김지선 씨가 물리치료사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김지선 씨로 인해 흐름이 끊겼고 결국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당황스러웠다. 제작진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시정이 안 된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64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349	30	-	-	266	64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297	211	7	-	-	130	64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06	539	-	64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487	2	84	72	64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어엠」 - 편성 요청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마당」 - 출연자 제언 ○ 「TV쇼 진품명품」 - 시청자 참여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 방송 호평 ○ 수목드라마 「킁킁킁」 - 출연자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 방송 호평 ○ 「가정음악」 - 진행자 섭외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지리산 식당」 연락처 문의 42건 ○ 「아침마당」 - 「방송 정보」 문의 25건 ○ 「개그 콘서트」 - 「방청」 문의 14건 ○ 「2TV 생생정보」 - 「술밥」 문의 14건 ○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 「편성」 문의 10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신료」 문의 48건 ○ 「홈페이지」 문의 20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9건 ○ 「전화교환」 문의 6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1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72건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요청	<p>○ 「디어엠」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 최근 KBS 드라마의 문제점은 젊은 시청자들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SNS에서 화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21년 방영 예정이었던 「디어엠」은 젊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였다. 하루빨리 방영되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1**</p>
[시사·교양]	
출연자 제언	<p>○ 「아침마당」 (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2. 20.(목) 1TV (08:25-09:30) - 물리치료사가 출연해서 호흡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본인이 호흡기가 좋지 않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패널 김지선 씨가 물리치료사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김지선 씨로 인해 흐름이 끊겼고 결국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당황스러웠다. 제작진이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시정이 안 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청자 참여 제언	<p>○ 「TV쇼 진품명품」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일) (11:10-12:00) - 일반인에게도 방송에 출연해 퀴즈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본인도 방송에 참여해서 퀴즈를 풀고 장구 선물을 받고 싶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안**</p>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섭외 제언	<p>○ 「가정음악」 (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M (월-일) (09:00-11:00) - 본인은 십 년 넘게 KBS 1FM을 청취했다. 그런데 아나운서에게 음악 프로그램을 맡기는 것은 KBS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청취자들을 배려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나운서가 백과사전은 아니다. 음악 방송에 대한 진행이 이전 진행자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예전에는 일도 빠져가며 클래식 채널에 빠져들었는데, 이제 듣지 않게 된다. 진행자를 조금 더 신중히 섭외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